

초등 2~3학년
독후활동지 (교사용)

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



우리 동네 발차기

글 황선애 | 그림 서영

스폰북



우리 동네 발 차기

- 글: 황선애
- 그림: 서영
- 출판사: 스폰북
- 정가: 13,500원
- 분량: 100쪽
- 대상: 초등 저학년
- 키워드: #가족 #편견 #성평등 #이해
- 교과 연계: [통합 2-1] 1. 이런 집 저런 집
[국어 2-1] 8. 마음을 짐작해요.
[국어 2-2] 7.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요.

책 소개

우리영네 집은 엄마가 회사에 다니고 아빠가 집에서 살림을 해요. 아빠가 집에 있으면서부터 리영이도, 동생 리하도 정말 좋았어요. 아빠는 배고플 틈도 없이 맛있는 음식을 계속 만들어 주고, 이야기도 참 잘 들어주거든요. 그런데 집안 일하는 아빠를 보는 어른들의 반응이 이상해요. 승우네 할머니도, 리하 친구 엄마들도 아빠를 보고 수군거려요. 아빠는 집안일을 하는데 집에서 논다는 등, 남자가 살림을 챙기는 게 쉽지 않다는 등 속닥속닥. 리영이는 아빠가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게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란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? 《우리 동네 발 차기》를 읽고 태권 소녀 우리영과 함께 편견을 부수는 우렁찬 발 차기를 땡 날려 보아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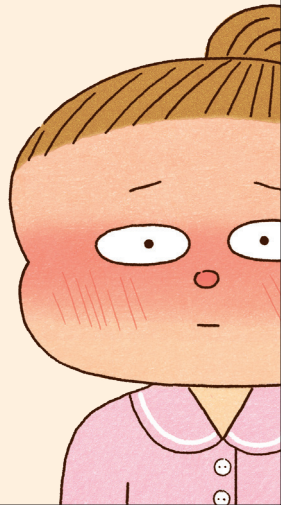
주요 독후 활동



책 읽기 전 표지 살펴보기

책 속으로 ① 이야기 속 주요 장면
② 등장인물의 마음 읽기
③ 우리 가족을 소개해요

책을 읽고 나서 나만의 자격증 만들기





독서 전

책 읽기 전: 표지 살펴보기



- 1 책의 제목을 살펴봅시다.
- 우렁 소녀는 무슨 뜻일까요?

- 2 표지 속 그림을 살펴봅시다.
- 태권도복을 입은 소녀와 그 아래 세 사람은 한 가족이에요. 우리 집과 같거나 다른 모습이 있나요?

- 표지 제목과 그림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, 《우렁 소녀 발 차기》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? 자유롭게 상상해 보아요.



독서 중

책 속으로 ① 이야기 속 주요 장면

- 집에 있는 아빠를 바라보는 리영이의 시선은 계속 달라집니다. 리영이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순서에 맞게 번호를 적어 보세요.

1

몇 달 전부터 아빠가 집에서
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.

5

아이스크림을 도둑질하는
중학생 언니들을 잡으려다가
위험에 빠진 리영이와 승우를
아빠가 도와주었어요.

4

리영이는 아무 아빠나 그렇게
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선생님의
말에 위로를 받았어요.

2

리영이는 아빠가 집에서
맛있는 것도 만들어 주고
학교 이야기도 잘 들어주어서
너무 좋았어요.

3

리영이는 주변 어른들이
아빠를 보고 수군거리자
아빠가 부끄러워졌어요.

6

리영이는 아빠가 곁에 있어서
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.



독서 중

책 속으로 ② 등장인물의 마음 읽기

•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.

보기

행복함

미안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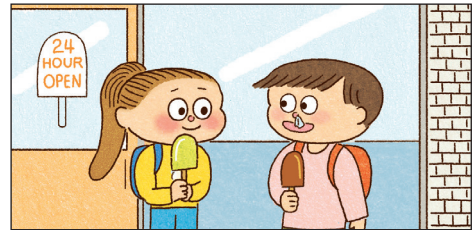
뿌듯함

창피함



만약 지금 엄마가 있었으면 어땠을까. 승우 앞에서 혼은 났겠지만, 기분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거다.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아빠가 부끄러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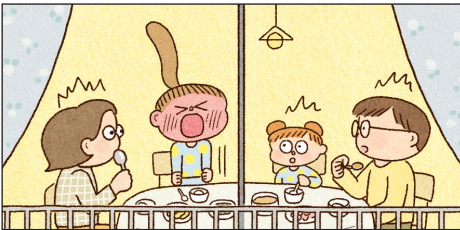
창피함



“고마워.”

승우가 아이스크림 껍질을 벗기며 또 고맙다고 말했다. 기분이 좋아서 저절로 몸이 뽕뽕 뜨는 것 같았다.

행복함



나는 그냥 말없이 아빠 옆에서 걸었다.
“리영아, 너한테 창피한 아빠가 돼서 마음이 안 좋구나.”
으으, 이 말은 하지 말지. 그러면 내가 더 미안해지잖아.

미안함



“아저씨, 저도 불러도 돼요?”

“저도, 저도요!”

아이들이 아우성을 쳤다.

괜히 어깨가 으쓱했다.

뿌듯함



독서 중

책 속으로 ③ 우리 가족을 소개해요

- 가족의 모습은 집집마다 다르다는 걸 아나요?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어요.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가족이니깐요. 《우렁 소녀 발 차기》 친구들의 가족 소개를 듣고 여러분의 가족을 소개해 보아요.



우리 가족은,

.....

.....

.....



독서 후

책을 읽고 나서: 나만의 자격증 만들기

[53쪽~57쪽] '감정 평가사.'

감정을 평가한다고? 이거 아빠한테 딱이잖아!

아빠는 감정이 풍부하다. 다른 사람 감정도 아주 잘 본다.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냉큼 떡볶이를 만들어 준다. 엄마가 힘들어하면 바로 안마를 해 준다. 리하가 유치원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땐 더 흥분하면서 리하 편을 들어준다.

(중략)

“근데 있지, 감정 평가사는 사람 감정을 평가하는 게 아니야.”

“그럼 뭐데?”

내가 얼른 끼어들었다.

“물건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거야. 땅이나 건물이 얼마지 말아야.”

앗, 그런 거였구나!

실망한 표정을 짓는 나를 보며 아빠가 크게 웃었다.

“사람 감정이면 몰라도 재산 감정 같은 건 난 못 본다, ㅎㅎㅎ.”

사람 감정 잘 보면 이것도 잘할지 어떻게 알아? 아빠는 지금 자격증 같은 건 딸 생각이 아예 없는 거다.

- 책에는 다양한 자격증이 나와요. 여러분도 나만의 자격증을 만들어 보아요. 실제로 있는 자격증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요! 왼쪽에는 어떤 자격증인지 설명을 적고, 그 자격증을 가진 나의 모습도 그려 보아요.

